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2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0년 3월 31일(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안내말씀 드립니다

- 춘향(春享) 간소화 및 총회일정 추후 결정 -



심대평
대중회 회장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오직 우리 스스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최상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4월부터 시작되는 5처 묘소의 춘향봉행과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가 여러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요즘 얼마나

정 등 공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처묘소의 춘향(春享)은 전국의 일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지양(止揚)하고, 대중회 상임이사, 지역유사, 묘하 일가 등 약간 명만 모여 일정대로 간소하게 봉행(奉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이사회, 회장단 등 회의 개최일정은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살피면서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률과 사망률은 면역력이 낮은 고령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제(時祭)와 총회 등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일가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70대, 80대의 고령일 뿐 아니라, 또한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일가 분들이 모이게 되어 감염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대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일가 여러분의 건강을 간절히 기원 드리며, 감염 위험지역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하는 등 예방에 적극 대처하셔서 모쪼록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2020. 3.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대평 배상

인터넷 족보(族譜) 수단안내

청송심문의 혈통과 조상님의 훌륭한 업적이 수록된 대동세보(족보)를 5년 전에 일제 정비한 바 있으나 그동안 출생, 사망, 결혼, 이장(移葬), 추가경력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를 족보에 새로이 등재 또는 수정하고자 하시는 일가 분께서는 이번에 빠짐없이 수단(收單)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신청 안내

1. 수단 접수기간 : 2020년5월1일~10월30일

2. 제출서류

가. 인터넷족보 수단용지 (별지서식)

나. 가족관계증명원, 재적등본, 기타 등재관련 증빙서류

※ 족보등재는 공문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공문서 외의 파보, 가승 등 사문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수단금 납부 증빙서류 또는 납부확인서

3. 제출방법

가. 우 편 : 서울 중구 을지로 30길47.

(찬경회관 5층)

나. 팩스 : 02-2269-7755

다. 메일 : set217@naver.com

4. 수단작성 방법

“청송심씨종보” 또는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의 「정보자료실 메뉴 21」에 공지한 수단용지(갑, 을)를 출력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상세히 작성 바랍니다

※ 「정보자료실 메뉴 22」의 수단작성(견본) 참조

5. 수단금 납부

가. 수단금 : 관(冠) 20,000원, 동(童) 15,000원, 수정(修正) 10,000원

※ 관은 기혼자(배우자 포함), 동은 미혼자, 수정은 기 등재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입금계좌 : 농협 301-2267-7897-81

예금주 : 청송심씨대중회(족보)

6. 유의사항

가. 수단록 제출 시 수단금 납부 영수증사본 등 납부확인서류를 동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입금 시에는 납부일자, 입금자, 금액 등을 유선으로 통보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회 총무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2-2267-7857, 010-5591-0055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2)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한 순문 할아버지

8세조 사인공 휘:순문(舍人公 諱:順門)



沈厚燮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애야. 내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니?

폭군인 연산군 때에 순문(順門, 1465~1504) 할아버지가 계셨어. 증조부는 태종 때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온(溫) 할아버지셨고, 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회(澮) 할아버지셨어. 아버지는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을 지내신 원(潁) 할아버지였고, 어머니는 부사정(副司正)을 지내신 이의구(李義祐)의 따님이셨어.

순문 할아버지가 어릴 때였어.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어,

“너 또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하루 이틀이 아니니 오늘은 매를 좀 맞아야 하겠다.”

“앞으로는 열심히 책을 읽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학문을 닦고, 집안과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할 것이야.”

순문 할아버지는 3살 때에 이시애의 난으로 아버지를 여의었던 거야.

이에 대해서는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쓴 순문 할아버지의 묘갈명에 잘 나와 있어.

공은 어렸을 적에는 차분하고 말이 없었으며 자라면서 보통 아이들보다 우수하였다. 그러나 참관공이 일찍 세상을 떠나 집에서 아버지의 엄한 훈계를 듣지 못하였으므로 열너댓 살이 될 때까지 학문에 대한 뜻을 세우지 못하였는데, 어머니가 몹시 우려하여 불러서 나무라고 타이르자 공이 바로 깨우치고 감동하여 스승을 찾아가 수업하며 부지런히 애써 게으르지 않고, 비록 비와 눈이 내리더라도 거르지 않았다. 학업이 나날이 성취되었으므로 조부인 공숙공(恭肅公)이 매우 기뻐하며 여러 자손 가운데 특별히 사랑을 모아 주었고, 늘 공이 자라서 원대하여지기를 기대하였다.

순문 할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로 보면 순문 할아버지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

1486년(성종 17)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5년(연산군 1) 증광시(增廣試)에서 을과로 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보임되었다. 이어서 박사에 승진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 뒤 성균관전적·감찰이 되고, 이 해에서 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병조정랑이 되었다.

이어서 부수찬(副修撰)·정언(正言)·부교리(副校理)·지평(持平)을 거쳐, 1503년 장령(掌令)에 올랐으며, 이어 검상(檢詳)·사인(舍人) 등을 지냈다. 이 때 국왕 의복의 장단을 지적하여 연산군의 미움을 사고, 이듬해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개령현(開寧縣)에 유배되었다가 참수되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직언을 잘하여 연산군의 폐정을 자주 지적하였다. 중종 때에 복관되었다.

다시 순문 할아버지의 묘갈명을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조정에서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늘 청렴하고 삼가고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 직분 다할 것을 생각함은 인신(人臣)의 분수이다.”고 하였다.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문 할아버지는 매우 청렴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직하셔서 잘못된 일은 끝까지 직언하셨어. 그 결과 연산군의 미움을 받으셨던 거야. 당시 죄목은 연산군의 잘못을 지적하며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것이었다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이에 대해 우정 김극성(憂亭 金克成, 1474~1540)은 순문 할아버지를 적극 옹호하였다. <국조인물고>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어.

연산군이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심순문을 죽이고자 하여 군신(群臣)들에게 물었지만 모두 감히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였다. 공(金克成)이 대사간(大司諫) 성세순(成世純)에게 이르기를 “간관(諫官) 벼슬로써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한갓 몸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말은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니 어찌 하리오” 라고 말하자, 좌우에서 아무 말을 못하였다. 그러나 공은 드디어 심순문의 억울한 정황을 아뢰었다. 연산군이 듣지는 않았으나 (金克成에게) 죄를 내리지도 않았다.

이로 보면 순문 할아버지는 죄가 없음이 분명하고, 이를 지적한 김극성 또한 본분에 충실한 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런데 야사(野史)이기는 하지만 한 기생을 두고 연산군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순문 할아버지는 같이 벼슬길에 오른 친구 강흔(姜渾)과 함께 어울리며 각기 미모가 빼어난 기생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눈여겨 본 선배 정봉(鄭鵬, 1467~1512)이 은근히 타일렀다고 해.

“빨리 버리어 뒤에 누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순문 할아버지 내외분 묘소(경기도 김포 소재)

이 말을 들은 강흔은 곧 기생첩을 버렸으나 순문 할아버지는 웃어넘기고 말았다는 거야. 그 뒤 두 기생이 궁중에 뺨혀 들어가 연산군의 애첩이 되니, 연산군이 질투심에 북 바쳐 순문 할아버지를 해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렇다면 우리는 순문 할아버지의 잘못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 우리가 선조들의 이야기를 되새기는 것은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고치는 데에 그 뜻이 있는 거야. 순문 할아버지는 폭군을 만나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그렇지만 그 전후사정은 따져보아야 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정론을 펼친 김극성의 용기와, 정봉의 의미 깊은 충고, 강흔의 정확한 사리 판단 등을 잊지 말아야 하겠구나.



최근 새로 세운 묘비

5세조 지성주사공(繼年) <숙부인(淑夫人) 강진최씨(康津崔氏)> - 할머니 묘소 단장 -

종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5세조 지성주사공(繼年) 배위(配位)인 강진최씨 할머니의 묘역 사업이 종회 원로 貞燮과 종회장 大燮, 총무 상모, 감사 태수, 揆榮 등 종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019년 5월 17일 준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전남 장성군 황룡면 와곡리에 모셔진 옛 묘소의 봉분을 보수하고 주변을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묘소 앞에 단아한 형태의 묘표석(墓表石)과 상석, 묘비, 묘비 내용을 한글로 번역한 와비, 석등으로 단장하여 한문을 잘 모르는 후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靑城伯

(덕부)과 송씨 할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諱는 繼年, 號는 遁齋로 조선이 개국하자 前朝인 고려 때 지성주사란 벼슬을 하여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은둔 생활을 하시다가 조정에서 다시 찾아 나주목사로 교지를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진원현 산골로 은둔하시었다. 그 후 佛家에 들어가 道生으로 개명하여 은둔생활을 하시며 끝까지 절개를 지키셨다. 출가하여 할아버지인 안성의 청화부원군 묘소 근처 실왕사에서 스님으로 일생을 보냈다는 설이 있으나 나주 용진산에 분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출가하지 않

고 佛家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충직한 신하로 끝까지 절개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필자 : 심대섭(지성주사공파종회장)



새롭게 단장한 지성주사공 배위 강진최씨 할머니 묘소 (장성군 황룡면 와곡리)

鶴松 심의성의 애족가(愛族歌) (沈宜聖, 1899~1976)



심의성 선생

‘애족가’ 출처 : 청송심씨 돈목회, 「靑松報」 2집 (1955년 발행), 29쪽

애족가(愛族歌) -심의성 작-

1. 普光山의 저 소나무 四時長靑 변함없이 능상오설(凌霜傲雪) 푸른 것은 우리 沈氏 기상일세
2. 得姓이래 삼천여년 우리 大韓 大姓으로 혁혁(赫赫)하게 계승함은 우리 선조 음덕 일세
3. 청송심씨 돈목회(敦睦會)는 선조 유심(遺心) 유전(遺傳)하야 만인일심 돈목하여 서루서루 사랑하세

(후렴) 우리 대한 수만인의
우리 종족 청송 심씨
종족으로 자손만대
기리기리 보전하세

해설) 심의성 선조는 청송심씨 도총제공과 후손으로, 주요 세거지 原州에서 거주하셨다. 현재 대중회 심상현 부회장의 조부이다.

원주지역 청송심씨 집성촌인 소초면 일대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심의성 선생은 청송심씨 돈목회(대중회) 활동에 열성적이었고, 돈목회의 「靑松報」에 종족 간의 친화를 얘기하는 내용

의 회두시(回頭詩)를 많이 발표하였다. 그리고 소초면의 3.1운동을 주도한 분으로서 당시를 회고한 육필원고를 남겨서 원주의 역사를 이해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을 기점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3월20일경 천도교구장 최종화와 천도교인을 비롯한 지역면민들은 황성과 소초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3월27일 장꾼으로 가장하여 황성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때 격렬한 시위행진을 주도하며 선봉에 섰던 강만형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다시 4월1일 반대시위를 강행 하였을 때 강달희, 하영현이 일본군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의병으로 활동했던 마을 훈장 박영하, 심의성, 신현철 등을 주축으로 한 소초면민 약 400여 명은 마침내 4월5일 부재고개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소초면 사무소를 향해 나아갔다.

시위대의 김동혁, 김춘배, 김인배는 소초면장 남상철을 강제로 시위에 동참시키고, 박영하의 선창으로 소초면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다. 체포된



소초면사무소 앞마당에 세워진 소초면 독립만세 기념비

강만영은 고문으로 옥사했고, 소초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들은 대부분 일본헌병에 체포되어 참혹한 고문으로 살점이 벗겨지거나 참혹한 태형과 징역형을 복역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었다. (재석, 편집위원)



沈영감 심민섭

안녕하슈...

하슈??

자네 몇살이야?

우리동네 할아버지다!
코로나 말세로다

남파상공南坡相公 영의정 沈悅(심열, 1569~1646)

탁월한 재정 전문가로 국정을 이끌다



沈載錫
(문학박사)

I. 수려한 외모, 다정한 성격의 심열

남파 심열은 적당한 키에 넓은 이마, 큰 귀, 종소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으며, 수염이 펄럭 펄럭 거리는 외모였다고 한다. 성격은 다정하였고 동생이나 누이 등 어렵게 된 친척을 돌봐주었다(申最, <심열묘지명>). 심열은 자신의 외모를 “허연 얼굴, 백발의 南坡노인”이라고 묘사했다(《新居》「청송심씨 세고선」 127쪽). 남파의 생부인 심충겸은 靑林君으로 봉해졌으며, 이후 5대에 걸쳐 封君되었다.

II. 심열은 이런 분이다

- ① 안효공(온)파 : 성천부사공(예겸)계로, 生父는 충겸이다.
- ②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재정(財政) 전문가로, 광해군과 인조 대에 크게 활약하였다. 광해군 정권에서 인목대비 폐모정청에 참여하고 고위직으로 활약했지만, 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으로 인해 인조반정 이후 서인 정권에서도 등용되어 재상이 되었다.
- ③ 지방관으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남겨, 강화도에 선정비가 있다. 함경감사 시에는 그곳의 지역민들이 조정에 찾아와 심열의 유임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 ④ 아들 熙世는 보학(譜學)의 대가로, 「기축보」(1647) 편찬의 기초를 닦았다. 필자는 이번에 몰랐던 심희세의 초상화를 발견하였다.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
- ⑤ 희세의 모친은 좌찬성(종1품) 具思孟의 딸이다. 구사맹의 또 다른 여식이 인조의 어머니이므로 희세와 인조는 이종형제다. 그리고 희세의 자형이 澤堂 李植이고, 그 아들이 좌의정 李端夏이다.
- ⑥ 희세의 7형제 중, 큰 형인 光世는 그 직계 후손 중에 영의정이 세 명이며(수현, 환지, 순택), 命世는 인조반정의 주역으로 정사공신이다. 그리고 長世는 ‘태백 5현’으로 추앙 받는 인물이다.
- ⑦ 심열은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생부인 <충익공신도비>, 사돈인 영의정 <신흠신도비>, 둘째 형 挺世의 장인인 영의정 <김제남신도비>, 그리고 <정창손신도비>, <선조대왕哀冊文>, <의인왕후옥책문(懿仁王后玉冊文)>등을 썼다(書).
- ⑧ 경종비 단의왕후(端懿王后)가 심열의 직계 후손이다. 경종이 사망하고 노론이 집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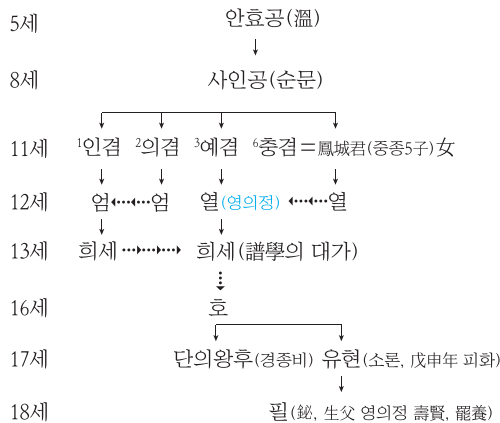


<심열 묘소(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 자, 영조에 반대하는 무신란(1728)이 터지고 그 주요 가담자의 한 사람이 왕후의 아우 심유현이었다.
- ⑨ 호폐법의 시행을 반대하고, 量田을 주장하였다. 민폐를 우려한 정치적 견해였다.
 - ⑩ 저작을 모은 「南坡相國集」(6권)이 있다.
 - ⑪ 임진·병자 양난 때 잃어버렸던 3세조(청화부원군 沈龍) 묘소를 경기감사로 재직하면서 찾았다(「경진보」(2002) 首卷 108쪽).
 - ⑫ 심열은 종이었던 서기(徐起, 1523~1591)를 면천시켜 공부하게 했다. 서기는 조헌(趙憲)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 ⑬ 沈悅의 이름은 광해군대에는 심돈(沈惇)이나 심한(沈悍)으로도 나온다. 그러나 「癸巳譜」(1713)에는 沈悅로만 기록되어 있다.
 - ⑭ 남파상공 심열은 말년으로 갈수록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걷기가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안 좋았으나, 국가의 요청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봉사하였다. 그러나 평생을 녹봉 외에 한 치의 부정이 없었던 청백리였다(행장/묘지명)

III. 심열 간략 계보와 연보

① 간략 계보도



② 간략 연보 (심열은 광해군대에는 심돈, 심한으로 개명함)
* 관직은 임명시기와 무관하게 실록에 처음 나오는 기사를 중심으로 기록함

서기	이름	나이	주요 관직
1569(선조 2)		1	출생
1593(선조 26)	심열(沈悅)	25	별시문과 합격
1604/05/07		36/37/38	강화부사/황해감사/충청감사
1613(광해 5)	심돈(沈惇)	45	※ 1613, 계축옥사(7庶之獄)시 유영경의 아들 柳悅이 처형되자, 개명함.
1622(광해 14)	심한(沈悍)	54	청송부사. ※ 개명 이유 불상
1623(인조 1)		55	경기감사
1624~1638		56~69	호조판서 4회, 공조판서 2회
1627(인조 5)	심열(沈悅)	59	강화유수(정묘호란 후)
1638(인조 16)		70	우의정(호조판서 겸임)
1643(인조 21)		75	좌의정, 영의정(이때 좌의정은 沈器遠)
1646(인조 24)		78	졸(1.24)

IV. 광해군 시절 심열의 행적

- ① 경기감사, 경상감사 : 선조 대에 해주목사, 강화부사, 황해감사, 충청감사 등을 역임한 심열은, 광해군 즉위 후 대북정권 하에서도 중책을 맡았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영창대군을 옹립하려했던 柳永慶이 처형되고, 그 아들 柳悅도 당고개에서 생을 마감했다(「광해군일기」 4/7/18). 이에 심열은 이조를 통해, 悅을 惇으로 고쳐 국왕의 허락을 받았다. 광해 6년(1614)에는 안동부사에서 경상감사로 제수되었는데, 일처리에서 그 재주를 한껏 발휘하였다. 수북이 쌓인 사건들을 깔끔하게 처리하여 못 사람을 경탄케 하였던 것이다.
- ② 심열의 발목을 잡은 <인목대비 폐모 정청(庭請)> 참여 : 1618년(광해군 10년) 1월 14일, 이이첨이 주동이 되어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대비’를 폐모 庭請이 벌어졌다.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우의정 한효순이 이광정, 심돈(沈惇) 등등 거의 모든 관료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사실은 인조반정 후 심열의 관직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다.

V. 인조대 행적

- ① 서인정권의 심열 재등용과 改名 : 인조반정(1623)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광해군대에 개명했던 惇을 다시 悅로 환원하였다(《京畿監司時還復舊名疏》「南坡相國集」 권2).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열(悅)	돈(惇)	한(悍)	열(悅)
1~44세	44~53세	54세	55~78세
선조/광해	광해군		인조
- ② 강화도를 두 번(1604, 1627) 책임진 심열 : 1604년(선조 37년)에 36세때 강화부사로 잠시 있던 뒤, 광해군 10년(1618)에는 강화도가 保障處로서 좋음을 강조하였다. 정권이 바뀌어 1627년(인조 5년), 59세의 심열은 강화유수 <심열 선정비(1628)> : 강화도 전쟁박물관마당 (2020.2.21) 수가 되었다.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에 피신 후, 환도하면서 비변사의 건의로 前에 강화부사 경력이 있는 심열을 유수로 앉혔다. 실로 23년 만에 다시 요충지 강화부를 맡게 되었다. 강화유수로서의 치적은 그가 이임한 뒤 善政碑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行留守沈公悅淸德善政碑’라 새겨진 비석은 현재 강화도 전쟁박물관 앞마당에 여러 비들과 위용을 견주며 서 있다.
- ③ 병자호란(1636) 시 남한산성에서 청과 講和를 주장하였다 : 공조판서였던 심열은 산성에서 “포위된 지 수일이 되도록 개미새끼 한 마리도 구원하려 오지 않는데, 양식 떨어지고 성이 고립되면 그 위태로움이 한 가닥 머리카락보다 심하다(《扈駕南漢時劄》「南坡相國集」 권3).”면서 講和를 주장하였다.



<심열 선정비(1628)> : 강화도 전쟁박물관마당 (2020.2.21)

④ **최명길**이 국가의 기밀 사항은 누설을 막기 위해 史官이 못 보게 하자 심열이 반대하다 : 당시 호조판서 심열은 “아무리 국가의 기밀에 관계된 일이라 해도 어찌 사관이 보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인조실록」 16/5/12)”라고 반대하였다. 남파의 역사관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⑤ **전례없이 우의정으로서 호조판서를 兼領**하다 (「인조실록」16/9/16) : 정승이 호조판서를 兼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심열의 재정에 대한 능력은 탁월하였다. 그는 6개월간 호관을 겸령하였다.

⑥ **進賀使** : 7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進賀使로 瀋陽에 다녀왔다. 이때 조선의 내심은 세자의 封典과 환국을 요청하려는 것이었으나, 분위기상 심열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⑦ **어떻게든 심열을 붙잡으려는 인조** : 말년의 남파는 身病으로 인해 더 이상 조정에 나갈 수 없었다. 76세에 영의정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왕은 그를 사직시키지 않고 고관을 남파의 집으로 보내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해 오도록 했다. 그래도 심열이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인조는 그를 좌의정으로 한 직급 내려서 제수하고 조정에 머물게 하고자 애썼다. 그만큼 심열의 노련한 정책이 절실했던 참이다.

이후에도 영중추부사 그리고 우의정으로 임명된 뒤, 심열이 13차례나 사직서를 내자 겨우 퇴임을 윤허하였다(「인조실록」 22/8/26). 그러고도 다시 좌의정에 임명하니(12월10일), 사실상 조정의 영수로서 지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VI. 심열의 生父 **충익공 심충겸**은?

① **임란 시 왕을 의주(義州)로 몽진케 하다** :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鏡城으로 피난코자 했으나, 심충겸과 이항복이 극구 간언하여 義州로 옮겼다. 병조참판 겸 비변사제조였던 심충겸은 의주에서 명나라의 구원병을 기다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② **임란 중 군량미(軍糧米) 조달에 큰 공을 세웠다** : 이는 아들 남파가 財政 전문가로서 국정에 기여한 사실과 연관된다. 부자간에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통점이 있다. 이후 병조판서에 올랐고, 국가의 큰일을 하려던 차 젊었을 때의 고질이 도져 50세에 서거했다. 공은 임종 시에도 오직 국사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병조판서심공신도비명」 「상촌집」 권28). 저서에 「四養堂集」이 있다.

VII. 심열의 필적이 남아있는 **神道碑**를 찾아서

당대 명필이었던 남파상공의 필적을 찾아본다.

① 조부 沈綱 신도비(김포 응정리)를 썼다.



심강 신도비

② 생부 沈忠謙 신도비(양평)를 썼다.

③ **金梯男 신도비(원주)** : 김제남은 인목대비의 아버지이며, 영창대군의 외조부이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사사되었다. 이 김제남의 사위가 심정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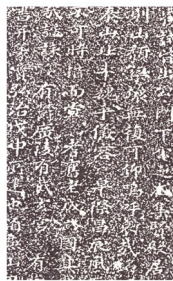


충익공 신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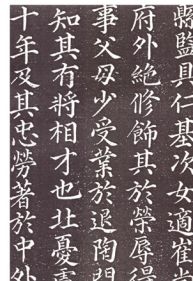
김제남 신도비-부분택본 (2020. 2. 15)

④ **鄭昌孫 신도비** : 심열은 성종의 배향공신인 정창손의 외6대손이다.

⑤ **상촌 申欽의 신도비** : 신희은 인조 배향공신이고, 심열과 사돈이다. 신희의 장남이 동양위 申翊聖으로, 심명세의 신도비를 쓰는 등 沈門과 인연이 깊다.



정창손 신도비 (양평군 양서면)



신희 신도비 (광주시 퇴촌면)

VIII. 심열의 가족

1) 아들 **심희세** : 심문의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는 심희세가 편찬을 시작한 「己丑譜」(1627)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우연히 심희세 영정을 발견하였다. <<심희세 초상화>> 「靑松의 뿌리」 31호 (1993), 3쪽. 「경진보」(2002)



심희세 초상화

‘영정’ 항목에도 빠져 있는바, 이를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다**. 심희세는 청송심씨족보를 수정하여 간행에 대비했으나 완수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심장세가 그의 수정 초보를 바탕으로 영주에서 간행한 것이 바로 기축보이다. 심희세는 당대에 알아주는 ‘譜學의 대가(「朝鮮社會史研究」 44쪽)’였던 것이다.

2) 심희세의 본생조부 **심의겸(沈義謙)** · 부친 **심엄(沈堉)**, 아들 **심추(沈樞)**

청양군 **심의겸**은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권신이 된 외숙 이랑을 제거함으로써 윤두수 등의 사림파를 구하였다. 흥섬, 이준경 등 사림파의 선배들은 **심의겸**의 도움으로 관계에 진출하였던 것이다(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 1. 109쪽). 그는 동서분당의 당사자라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할 때 **심의겸**은 서인의 영수가 되었다. **심의겸**은 전라감사 시절, 심문의 세 번째 대동보인 「戊寅譜」(1578)를 편찬했으나, 실물이 없다.

심의겸의 아들 옥과공 **심엄**은 능성구씨인 구사맹의 따님과 혼인하여 ‘7世’를 낳았다. 구사맹의 또 다른 따님이 인조의 모친이었으므로, 광

세 등은 인조 대왕과 이종 사촌이 된다. 심추는 심희세의 장자로, 백부 심명세에게 출계하였다. 여주목사를 역임한 그는 원주 심명세 묘역 아래 유택이 있다.

3) 심희세의 형제들

① **응교공 심광세** : 光世는 그 직계 후손 중에 영의정이 세 명이며(17세 수현, 19세 환지, 22세 순택), 「海東樂府」와 「休翁集」이 있다. 계축옥사(1613)에 연루되어 고성(固城)에서 1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으니, 이 때의 심정을 이렇게 읊었다. “고성으로 유배 와서 세월을 보내건만, 나그네의 큰 시름을 어찌 다시 논하리오(「固城卽事」 「休翁集」)”. 시절이 급변해, 인조반정 후 응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괄의 난으로 부여로 피난한 왕의 행재소로 가던 중 부여에서 病死하였다. 이때의 안타까운 사정을 申欽이 만사로 남겼다. “젊은 나이 황천이 뜻밖이어라. 머나먼 남쪽 땅에 시신 거두니 마음 슬퍼 눈물이 줄줄 흐르네”(「挽沈舍人光世」 「象村集」).

시절이 급변해, 인조반정 후 응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괄의 난으로 부여로 피난한 왕의 행재소로 가던 중 부여에서 病死하였다. 이때의 안타까운 사정을 申欽이 만사로 남겼다. “젊은 나이 황천이 뜻밖이어라. 머나먼 남쪽 땅에 시신 거두니 마음 슬퍼 눈물이 줄줄 흐르네”(「挽沈舍人光世」 「象村集」).

② **현감 심정세**는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제남의 사위이다. 김제남의 둘째 딸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이므로, 선조와 심정세는 동서간이다.

③ **청운군 심명세** : 인조반정의 1등 공신으로 靖社功臣이며, 창의문 현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 원주 목사 시절, 선조의 능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④ **覺今堂 심장세** : 太白5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IX. 심열의 현손녀 **단의왕후(1686~1718, 경증비)**와 현손 **심유현**

① **소론계 景宗의 즉위와 단의왕후의 책봉** : 경종은 즉위 직후, 단의왕후를 세자빈에서 왕비로 추존하였다.

② **경종 사후 담양부사 심유현이 戊申亂(1728)에 가담하여 큰 화를 입었다**. 심유현은 신문에서 죄목들을 극구 부인하였다. 본인은 왕실의 은혜를 분에 넘치게 받았으면서(「추안급국안」 42.〈영조4〉), 억울함을 분명히 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었다.



혜릉(단의왕후) - 구리시 '동구릉'

X. 남파상공의 기억

남파는 인목대비 폐모정청에 참여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지(度支)에 대한 뛰어난 경륜으로 왕의 총애를 받았고 정승까지 올랐다. 남파는 호조판서로 재직하면서 궁핍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느라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시력(視力)이 극히 나빠져 지적에 있는 것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정도였다(「戶曹判書辭職疏」(1629)) 「南坡相國集」). 말년에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다. 현재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심씨 世居地에는 성천부사공(예겸)을 비롯한 후손들의 묘역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재각 禮忠齋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심찬섭 씨 발행 『靑松의 뿌리』 개관

(沈燦燮)

(총 45호, '91~'94)

1. 심찬섭 씨가 발행한 『靑松의 뿌리』

대중회 소식지가 공백기였던 1990년대 초반, 심문의 소식을 전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였다. 개인의 노력으로 4년여를 발간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필자는 심찬섭 일가의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한 『靑松의 뿌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거듭 감사드리는 바이다.

2. 1990년대 초반 소식지 『靑松의 뿌리』

종보 137호에서 '돈목회'에서 발행한 초기 소식지 『靑松報靑송보』 전질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靑송심씨대중회'가 창립된 후 발행한 1971~1987년까지의 『靑松報靑송보』(총 20호)는 다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990년대 초 대중회가 소식지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심찬섭 씨 개인의 노력으로 발행한 신문 형태의 소식지 『靑松의 뿌리』를 일견한다. 1996년 이후 발행되고 있는 <靑송심씨종보>는 대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축쇄판으로도 발간되었기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3. 『靑송의 뿌리』 발행인 심찬섭 씨는?



심찬섭 씨
(『靑송의 뿌리』 1호 1면)

- 한국도로공사 기획이사 : (대중회 刊) 靑松報 14호(1981.11). 66쪽.
- 건설부 국립지리원 부이사관 심찬섭 : (대중회 刊) 靑松報 14호(1981.11). 33쪽.
- 건설부 부이사관 심찬섭 : (대중회 刊) 靑松報 14호(1981.11). 27쪽.
- 한국도로공사 이사 : (대중회 刊) [靑松報] 16호(1983.4) 7쪽.
- 안효공과 중회장 : [靑松의 뿌리] 1호(1991.1). 1면.

4. 『靑송의 뿌리』 발행에 참여하신 분들은?

24호(1992.12.20)의 5면 연말 인사에 보면, 발행인 심찬섭 씨 외에 沈載潤, 沈貞輔, 沈國鎭 등 세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5. <靑松의 뿌리> 題字

해안海巖 심재운沈載潤씨 휘호이다. 심재운 씨는 당시 '동서울종회' 총무였으며[사진-靑송의 뿌리 2호 2쪽], 도총제공과 후손이었다[15호 2쪽].



題字 - 심재운



심재운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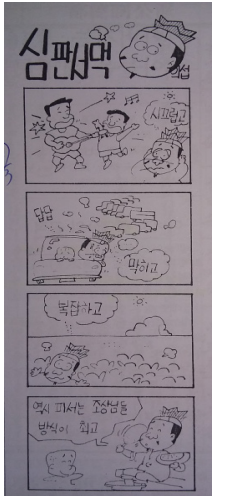
6. 『靑송의 뿌리』 표지와 내용 간략 소개

<p>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사(심찬섭) • 격려사(심명구) • 유적순례-찬경투 	<p>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익공, 청화부원군 • 선정의 불망비를 발견 • 소련 방문기
<p>1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옥같은 유묵 • 우리 심문의 후에 • 도덕성과 인간 	<p>20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남일 장군 • 열녀문 중수 • 삼대정승 묘소 성묘
<p>3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암공(淸) 행적 • 봉익대부공과 설단 봉향 • 광주금당산자손 재경회 	<p>3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회 회관 매입(총17억 7천만 원 : 청주 보상금 8억/안성 보상금 7억/입주 보증금 1.7억/예금이자 5천/심재명 5천) • 대중회 회관 매입에 5,000만 원 헌성-沈載明사장
<p>4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효공의 壻 郎外孫들 • 춘천불교신도금-沈鍾根이사장 당선 • 심명보 의원 별세 	<p>4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정공(天潤) 세 아드님 相明, 在淪 검사장 영전 • 社告 : 『靑송의 뿌리』가 창간 된 지 어언 3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 형편에 의하여 10월분은 休刊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휴간하게 되었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諒解와 協助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p>4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운동가 沈南一 • 대중회 회관 인 찬경회관 입주식 거행 • 감사원기술국 심찬구 국장-이사관 승진 	

7. 『靑송의 뿌리』의 전체적인 특징

- ① 이전의 <靑송보>와 확연히 다른 점은 '신문' 형태라는 점이다. <靑송보>가 책자처럼 묶여진 것이라면, <靑송의 뿌리>는 공히 8면의 신문 형태인 점이 다르다. 지금의 <종보>와 형태가 유사하다.
- ② 첫 호부터 '활자'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지금의 <靑송심씨종보>와 그 형태와 인쇄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 봉익대부공계의 전서공과典書公(沈之伯)派 단천端川종회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 ④ 매호마다 '심판서택'이라는 만화가 실리고 '만평'도 가끔 있다. 작가는 '의섭'씨였다.
- ⑤ 모범 종회를 소개하고 있다. 종회 사무실이나 선조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 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종회 / 인수부윤공과종회 / 공숙공종회 대구 청년회 / 전서공과 단천종회 / 춘천 연풍공 종회 등
- ⑥ '광고'를 게재하였다.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법이였을 것이다.
- ⑦ 광고 외에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었다. 일반 회원은 연 2만 원, 특별 회원은 '성의껏', 종회 단체 및 기타는 '성금'이었다.



- ⑧ 당시 학생 수련회가 있었고, 인천에는 <청인부인회靑仁婦人會>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36호 2면 하단). 靑송심씨 부인들로 이루어진 이 모임의 회장은 남수현南壽鉉여사였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였다.

8. 대중회 소식지의 변화(1955~2019)

1955년 발행한 <靑송보>와 그 이후의 소식지를 일별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난 65년 여를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종보였음을 확인하게 된다(필자: 재석, 편집위원).

돈목회	靑松報 (22집)	1955.7 ~ 1958.3	회장 : 福鎭, 宜韶 편집 : 相龍
靑송심씨 대중회	靑松報 (20호)	1971 ~ 1987	회장 편집 호수(발행기간)
			성택 載鎬 1~13호 (71~76년)
			명구 相得 14~20호 (81~87년)
심찬섭	靑松의 뿌리 (45호)	1991~ 1994	심찬섭(沈燦燮) 씨 개인이 발행 ※ 대중회와는 공식적으로 무관함
靑송심씨 대중회	靑松沈氏宗報 (현재 발행 중)	1996.2. ~ 현재	회장 편집 호수(발행기간)
			명구 상필 1~10호 (1996.2~1997.11)
			명구 11~71호 (1998.1~2008.5)
			의락 재열 72~76호 (2008.7~2009.1)
			두섭 77~88호 (2009.5~2011.3)
			의락 재서 89~107호 (2011.5~2014.5)
			갑보 광섭 108~113호 (2014.7~2015.5)
			갑보 114~130호 (2015.7~2018.3)
			대평 갑택 131~현재 (2018.5~발행 중)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백서 발간사

심문(沈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길...

국내·외 30만 청송 심씨 일가분들께 진한 감동과 자긍심을 안겨준 <2019. 청송 심씨 한마음대회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세기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에 접어들면서 급기야 가정 해체, 사회질서 붕괴 등을 초래하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심문은 800여 년의 가통(家統)인 '충효(忠孝)'와 '우애(友愛)'의 뿌리 정신을 계승하고 있으니 다행스럽게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5일 관향 청송에서 개최된 <2019. 청송 심씨 한마음대회>는 송조돈목을 실행하는 모범 문중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무려 5000여 명의 후손들이 시조 문림랑공(휘 : 洪孚) 추향제 봉행에 동참하는 진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자손(祖子孫) 3대의 아름다운 동행은 효행이요, 일가 간에 배려

하고 양보하는 미풍은 우애인지라 삼한갑족 청송심문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이 일가(一家)끼리 기획, 준비하여 운영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일가들까지 참여한 5000여 명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화합 향연』은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벤트일 것입니다. 아마도 문림랑공(휘 : 洪孚) 시조님이나 지극한 효성의 어진 왕비 소헌왕후께서도 10월 4일 소헌공원 내에서 진행된 재능 전시회와 효학술포럼, 멘토링 아카데미 그리고 10월 5일 현비암 앞 특설무대에서 연출된 성년례, 추향제 봉행, 개회식 및 어울림 한마당 등을 지켜보셨다면 후손들을 대견하고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당시 청송지방은 태풍 제18호 '미탁'이 내습하여 용전 천이 범람하였지만,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일정에 맞추어 현비암 앞 용전천에 강물이 빠지고, 오락가락 하던 가랑비 마저 행사 시간을 비켜간 것은 후손들을 어여뻐 여기신 선조님의 음덕이 미친 영향이라고 믿습니다.

초유의 문중 행사에 대한 애초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마음대회는 후손 모두가 청송

심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자긍심을 느끼기에 손색없는 명실상부한 성공 대회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일가분들의 가슴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한마음대회의 기획, 운영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심문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많은 후손들이 공유하며 자기발전에 동력이 되고, 현세 청송 심문의 역사로 보존할 수 있게끔 한마음대회에 참여한 일가분들의 참여와 역할 및 행사 구성 내용을 총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내·외 30만 청송 심문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특히 이 대회를 계기로 우리 심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심문의 역사에 길이 빛날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일가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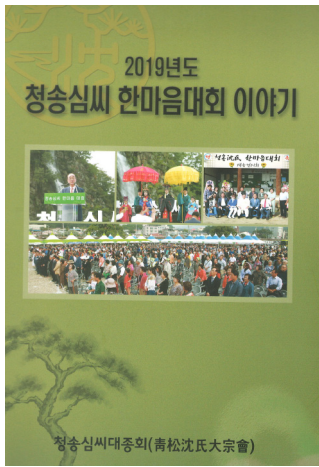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공지사항

한마음대회 이야기(백서)는 비매품으로서 이에 대한 성금은 청송심문이 과거에 이어 현재와 미래에도 명문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는 百年大計를 위한 (재)청심 장학회의 재원으로 적립됩니다.

백서를 받으시는 일가분들께서는 한마음으로 1권당 2만원 이상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안내

★ 한마음백서 계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협 : 301-0254-7374-11

2020. 3. 13~ 3. 25 협조해 주신분들

장학찬조

- 200만원 대평(회장)
- 100만원 내금위총회, 익명(대구)
- 94만원 창원 사복시정공파총회
- 60만원 광주청광회(회장 재규)
- 52만원 공숙공종회
- 50만원 재섭((주) 우리 회장)
- 40만원 광주송암총회(회장 재운), 관사공종회(회장 상우)
- 심용선(안동총회), 진해총회
- 30만원 성식, 용인총회, 충남아산총회
- 20만원 부평공종회, 동섭(철원), 기영·가희, 우식(곡성), 정임, 광섭(청송), 태섭(부산총회), 의령총회(회장 증영), 경남총회(진식), 철보(진주), 청주총회, 재상(합천), 예천군총회, 인수부윤공종회, 의두(고문), 오산 사복시정공종회, 춘천총회,
- 18만원 풍래(충주총회)
- 16만원 원보(현령공파)
- 12만원 흥식
- 10만원 진섭(수원), 재중, 주걸(안동), 상학, 기섭, 희준, 학섭, 윤정, 금택, 만섭, 우찬, 미정(발전), 영수(청송)
- 9만원 정섭
- 6만원 일섭(순천), 경진(수원), 고창현감파총회, 경남총회(한섭), 규동, 준섭(대구), 육환(인천)
- 5만원 윤보, 도섭, 명희(청송), 영보, 중섭, 경택, 한섭
- 4만원 정훈, 이섭, 명섭
- 3만원 국향, 철유(안성), 웅근, 재성(홍천), 재만(태광정밀)
- 2만원 재인, 문보, 범식, 상진, 광열, 상육, 금배, 산태, 상흥, 민섭(김포), 흥섭, 재섭(거창), 연희, 영섭, 현섭(시흥), 현섭(경기), 광섭(광주), 혜성, 역수, 숙희, 규익, 기영(수원), 재광, 상범, 재율(부산), 평택, 정행(대구), 규선(대전), 현근(대전), 수섭

종보구독 신청

종보구독을 희망하시는 일가께서는 도로명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대중회 사무실 팩스(02-2269-7755)나 전화(02-2267-7857)로 신청하시면 격월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종보는 일가분들의 찬조금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3월, 9월에 종보찬조, 지로 고지서를 동봉하여 배송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책자강매 주의

매번 공지하여 드린바와 같이 대중회를 사칭한 책자강매에 속아 명현보감이나 가승, 족보, 종회관련책자 등을 구매하고 대중회로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책자가 오면 개봉하지 마시고 착불로 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회에서는 전화로 책자를 강매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으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회 및 종갓집 탐방안내

지·파총회에서 각종행사, 효자(효부), 미담 등 종회의 활동이나 소식을 일가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할 경우, 대중회 문화이사에게 신청하시면 방문 취재하여 종보에 게재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상대대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종갓집도 방문할 계획이오니 종갓집에 관한 정보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심장학회 제1회 장학생 영국 금융감독위원 공채 수석합격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제1회 장학생 沈하진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학생이 영국 금융감독위원회 공채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지난해 10월 5일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특설무대에서 장학생 선발증서를 받고, '스토리텔링'을 했던 沈하진 학생이 영국 금융감독위원 공채에서 1만 3천명이 경쟁한 가운데 선발

된 3명 중 수석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심하진 학생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지난 10월5일 한마음대회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심하진 학생

인수부윤공(諱:澄)파 증회 정기총회 개최

인수부윤공파증회 2020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종인들께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4월17일(금) 12:00
-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경복대로 17번길 43-5 (양지리 325-1) 망세정공 재실
- 안건
 - o 2019회계년도 결산보고 승인
 - o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 o 기타 증무에 관한 사항

청송심씨인수부윤공파증회 회장 심정구

'19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 결산 감사

2020. 2. 25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대종회 회의실에서 대종회 회장단인 심종혁, 심달훈, 심충진 감사 3인은 2019회계년도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대종회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였다.



대종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있는 심충진, 심달훈, 심종혁 감사와 수감증인 심규정 재무이사

축하합니다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유엔거버넌스센터 (UNPOG) 제6대 원장에 취임했다.



심 원장은 행정고시 31회로 1987년 임용돼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沈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관이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심 위원장은 다양한 경력과 학식, 정책조정 능력을 겸비한 행정가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악은공(岳隱公) 종손 별세

청송심씨 악은공(岳隱公) 20대 종손이신 심영섭(榮燮, 청송 덕천리 거주, 향년 85세) 前 청송군의회 의장께서 2월 16일(일) 숙환으로 별세하시어 청송읍 덕리 선영에 안장되었다.



- 2020년분 임원회비 납부안내
- 회 장: 300만원 - 부회장: 30만원
- 감 사: 20만원 - 이 사: 5만원

각종 찬조현황(2020. 2. 1 ~ 2020. 3. 25)

■ 각 찬조 50만 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게재

진천월촌총회 (회장 상영)	심대민 (서울)	심무석 (서울)	광주청광회 (회장 재규)	심재규 (대종회 부회장)	이용란 (예천.구 구오)	효창공중회 (회장 상후)	정이공중회 (회장 석문)	철원봉익공중회 (회장 상국)	부사공중회 (회장 재문)
증보·장학찬조 60만원 2019년1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0년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9년12월	증보찬조 50만원 2019년12월	증보찬조 50만원 2020년1월	증보찬조 50만원 2020년1월	증보·장학찬조 300만원 2020년2월

장학찬조

- 300만원 오산시정공파증회 (회장 익섭)
- 150만원 부사공중회(회장 재문)
- 100만원 재섭 (주)우리 회장
- 10만원 신천공파증회

임원회비

감사회비 ('19년도)	20만원	달훈(감사)	이사회비 ('20년도)	5만원	상복(청송), 훈섭(청송), 상렬(서울), 완규(서울), 재석(인천), 종홍(경기), 현석(대구), 대섭(익산), 양섭(과천), 영섭(수원), 재문(안양), 극택(경기), 백강(양평), 재성(포천), 상근(전주), 성보(대전), 상규(인천), 재운(대전), 재모(운양), 재경(운양)
감사회비 ('20년도)	20만원	달훈(감사), 종혁(감사)			

증보찬조

- 150만원 부사공중회(회장 재문)
- 20만원 온양사복시정공파
- 10만원 김찬각(외손), 재성(경기), 언촌(수원), 신천공파증회(회장 재필)
- 5만원 현석(대구), 윤도(서울), 명섭(순천), 재복(서울)
- 3만원 재충
- 2만원 상기
- 지모증보찬조 343,360원

송금안내

★ 인터넷 족보 계좌 ★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2267-7897-81

청심장학회가 국가의 동량을 기르겠습니다.

★ 장학재단 기부금 ★
예금주 :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농 협 : 301-0256-8973-11

송금안내

임원회비·증보찬조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